

# 보건 행정 및 의료 경영 계열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습실태 및 학습기술훈련의 차이

김유호

본 연구는 보건 행정 및 의료 경영 계열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에 따른 학습실태 및 학습기술훈련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습실태 차이에서는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곳, 같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물음, 전공을 제외하고 주로 공부하는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공 만족 집단은 40명(35.7%)의 응답자가 취업을 위해 교수에게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전공 불만족 집단은 15명(38.5%)의 응답자가 취업을 위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또한, 전공 만족 집단은 50명(44.6%)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부의 양이 많다고 응답한 반면, 전공 불만족 집단은 15명(38.5%)의 응답자가 적성이 맞지 않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전공 만족 집단은 49명(43.8%)의 응답자가 전공을 제외하고 주로 공부하는 부분이 외국어라고 응답한 반면, 전공 불만족 집단은 14명(35.9%)의 응답자가 전공을 제외하고 주로 공부하는 부분이 자격증 준비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습기술훈련 요구도의 차이에서는 수업 청강 훈련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전공 만족 집단은 66명(58.9%)의 응답자가 수업 청강 훈련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강의집중훈련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예습훈련(23.2%)이라고 응답한 반면, 전공 불만족 집단은 24명(61.5%)의 응답자가 수업 청강 훈련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강의집중훈련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수업공정적 태도훈련(20.5%)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수업 청강 훈련에서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모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강의 집중훈련이지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전공 만족 집단은 예습훈련이라고 응답한 반면, 전공 불만족 집단은 수업공정적 태도훈련이라고 응답하였다.

**주제어:** 보건행정, 전공 만족, 학습실태, 학습기술훈련

## 1. 문제제기

최근 들어 대학의 입학정원에 비해 고교 졸업생 수가 줄어들음에 따라 대학 입학을 위한 경쟁은 느슨해진 반면, 대학 입학 후 받게 될 교육의 만족도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이은화·강승희, 2009: 118),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이 화두

가 되고 있다.

한편,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과 만족은 대부분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이루어진다. 성별, 학업성적, 지능, 재능과 같은 개인적 요인 외에도 부모나 교사의 영향, 사회계층배경, 교육제도, 산업구조 등 외부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임용수, 1993: 257-273; 신성규, 2011: 131).

오늘날에는 졸업 후 취업이 잘되는 학과이면 다소 적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심은숙, 2003). 그러나 전공 선택의 과정은 개인의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 선택과 장래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Logue, 2005).

그러나 대학의 전공과 관련한 교육의 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실제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졸 신입사원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기업현장의 요구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채창균, 2006; 이은화·강승희, 2009: 118). 또한, 전공 선택과 만족은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하혜숙, 2000; 이은화·강승희, 2009: 120).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과 전공의 차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이 대학생들의 변화와 발달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김영혜·최해립, 2005; 이은화·강승희, 2009)에 근거하여, 전공만족도에 따른 구체적인 학습 실태를 밝히고자 하며, 아울러 학습기술이 부족한 영역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결과(Fralick, 1990; 이은화·강승희, 2009)에 근거하여, 학습기술 훈련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한편, 보건 행정 및 의료 경영 계열 학과는 2년제, 3년제, 4년제 정규대학이 공존하고 있으며 취업이 잘 된다는 인식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건 행정 및 의료 경영 계열 학과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고, 더구나, 보건 행정 및 의료 경영 계열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습실태 및 학습기술훈련의 차이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어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하겠다.

##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 1. 선행연구 검토

#### 1) 전공만족의 개념과 영향요인

전공만족은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하며, 인지, 감정들의 복합체이며, 개인이 속한 전공학과 내에서의 행동은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이동재, 2004: 7). 또한, 하혜숙(2000)은 전공만족이란 자신의 기대와 진로나 직업준거 집단과의 비교 등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대와 진로나 직업준거 집단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장대운 외(1986)는 전공 만족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변인으로 역할 갈등과 관련된 개념인 생애의 이상은 개인의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개인이 어떤 특정한 활동분야를 선택해서 그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거기에 몰두하는 태도와 깊이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용수(1993)는 대학생들의 전공선택과 전공만족은 대부분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이루어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성별, 학업성적, 지능, 재능과 같은 개인적 요인 외에도 부모나 교사의 영향, 사회계층배경, 교육제도, 산업구조 등 외부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임용수, 1993: 257-273). 한편, Gati(1993)는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직업과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과정이 진로의사결정은 물론 전공 만족에도 필수적이라고 제시하기도 한다. 결국, 전공만족이란 전공 교과목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과 개인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이동재, 2004).

## 2) 전공만족과 학습실태 및 학습기술훈련과의 관계

전공만족과 학습실태 및 학습기술훈련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계현 외(1995)는 전공 및 학업태도에 관한 변인에서 전공 선택의 불만, 전과의 희망도, 진로의 확실성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 수준이 떨어진다고 제시하였고, 이수원 외(1986), 박병량 외(1991), 이민규(1994)의 연구에서 계열 및 학과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수준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재은 외(1997)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각 영역별 만족의 평균치를 낸 결과 학업생활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만족이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계열별로 예·체능계열과 의·약학계열 그리고 법과계열 순으로 만족이 높았다. 이러한 전공계열별 만족은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의 전문성을 지닌 전공계열과, 입학과 동시에 진로가 결정되어지는 전공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그리고 가정계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하혜숙(200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 만족에는 교과 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 만족의 4가지 하위영역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고, 연구의 결과에서 전공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도인 일반만족과 인식만족은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이동재, 2004: 10-11). 한편, 이동재(2004)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체감은 미분화 유형이 가장 많았고, 양성성 유형군이 미분화 유형군보다 전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을 돕기 위하여 입학시부터 미분화 유형을 위한 특별지도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신성규(2011)는 보건계열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4년제보다 3년제가 만족도가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공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학과만족의 요인 중 사회적 인식(전공에 대한 인식)과 전공교과·학과만족을 평가하는 연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정유진, 2011; 임승민, 2012: 16)

## 2. 연구방법론

###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충청북도 소재 대학교의 보건행정 및 의료경영 계열 재학생들로서,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 별	남자	35	23.2
	여자	116	76.8
	합계	151	100.0
학 년	1학년	31	20.5
	2학년	98	64.9
	3학년	22	14.6
	합계	151	100.0

위의 <표 1>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35명(23.2%), 여자가 116명(76.8%)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이 31명(20.5%), 2학년이 98명(64.9%), 3학년이 22명(14.6%)으로 나타났다.

###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생 학습실태 및 학습기술훈련 요구 검사 설문지는 기존의 선행연구(이은화·강승희, 2009)를 바탕으로 하였고,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조사 문항은 총 24개 문항으로 이 중 16문항은 학습실태와 관련된 문항이었고, 나머지 8문항은 학습기술 훈련에 관한 문항이었다.

### 3) 자료 분석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실태 및 학습기술 훈련 요구도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15.0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분석 결과

#### 1.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습실태의 차이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습실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표 2> 한 학기 동안 공부를 위해 교수와 면담한 횟수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15	58	26	10	2	1	112
		%	13.4%	51.8%	23.2%	8.9%	1.8%	.9%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7	21	7	4	0	0	39
		%	17.9%	53.8%	17.9%	10.3%	.0%	.0%	100.0%
전체		빈도	22	79	33	14	2	1	151
		%	14.6%	52.3%	21.9%	9.3%	1.3%	.7%	100.0%

※  $\chi^2 : 1.902, P > 0.05$

위의 <표 2>와 같이 한 학기 동안 공부를 위해 교수와 면담한 횟수는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위해 교수와의 면담은 1회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79명(52.3%)으로 가장 많았다.

<표 3> 학업수행과 관련하여 교수들이 도움 주기를 바라는 부분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자세한 설명	피드백	공부 방법	자료 추천	진로 조언	정기적 상담	실무 기회		기타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11	5	16	4	52	7	16	1	112
		%	9.8%	4.5%	14.3%	3.6%	46.4%	6.3%	14.3%	.9%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4	1	5	0	21	3	5	0	39
		%	10.3%	2.6%	12.8%	.0%	53.8%	7.7%	12.8%	.0%	100.0%
전체		빈도	15	6	21	4	73	10	21	1	151
		%	9.9%	4.0%	13.9%	2.6%	48.3%	6.6%	13.9%	.7%	100.0%

※  $\chi^2 : 2.519, P > 0.05$

위의 <표 3>과 같이 학업수행과 관련하여 교수들이 도움 주기를 바라는 부분은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학업수행과 관련하여 교수들이 도움 주기를 바라는 부분은 진로조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73명(48.3%)으로 가장 많았다.

<표 4> 학교에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실시하기를 바라는 방법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스터디 그룹 활성화	도서관 공간 확충	학습 자료 구비	공부 방법 안내	교수 자기 개발	시간 활용 안내	장학금 확충	학술제 장려	심리적 문제 해결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12	16	5	17	0	9	48	3	2	112
		%	10.7%	14.3%	4.5%	15.2%	.0%	8.0%	42.9%	2.7%	1.8%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2	8	1	5	2	4	15	2	0	39
		%	5.1%	20.5%	2.6%	12.8%	5.1%	10.3%	38.5%	5.1%	.0%	100.0%
전체		빈도	14	24	6	22	2	13	63	5	2	151
		%	9.3%	15.9%	4.0%	14.6%	1.3%	8.6%	41.7%	3.3%	1.3%	100.0%

※  $\chi^2 : 9.316, P > 0.05$

위 <표 4>와 같이 학교에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실시하기를 바라는 방법은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실시하기를 바라는 방법은 장학금 확충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3명(41.7%)으로 가장 많았다.

<표 5>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는 영역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영어	영어외 외국어	전공	전공 외 과목	자격증 관련과목	컴퓨터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26	8	58	2	18	0	112
		%	23.2%	7.1%	51.8%	1.8%	16.1%	.0%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7	2	18	1	9	2	39
		%	17.9%	5.1%	46.2%	2.6%	23.1%	5.1%	100.0%
전체		빈도	33	10	76	3	27	2	151
		%	21.9%	6.6%	50.3%	2.0%	17.9%	1.3%	100.0%

※  $\chi^2 : 7.352, P > 0.05$

위 <표 5>와 같이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는 영역은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는 영역은 전공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76명(50.3%)으로 가장 많았다.

<표 6>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곳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학교	사설 학원	인터넷	교수	동료	기타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27	3	32	40	9	1	112
		%	24.1%	2.7%	28.6%	35.7%	8.0%	.9%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5	0	15	9	10	0	39
		%	12.8%	.0%	38.5%	23.1%	25.6%	.0%	100.0%
전체		빈도	32	3	47	49	19	1	151
		%	21.2%	2.0%	31.1%	32.5%	12.6%	.7%	100.0%

※  $\chi^2 : 12.590^*$ ,  $*P < 0.05$

위의 <표 6>과 같이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곳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공 만족 집단은 가장 많은 대답인 40명(35.7%)의 응답자가 취업을 위해 교수에게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전공 불만족 집단은 가장 많은 대답인 15명(38.5%)의 응답자가 취업을 위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7>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적성이 맞지 않음	수업 따라가 기힘 듦	공부 목적이 불분명 함	과제가 힘듦	공부양 이 많음	우수학 생과의 차이가 부담스 러움	교수수 업방식 이 어려움		기타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4	14	17	6	50	13	4	4	112
		%	3.6%	12.5%	15.2%	5.4%	44.6%	11.6%	3.6%	3.6%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15	3	3	5	10	3	0	0	39
		%	38.5%	7.7%	7.7%	12.8%	25.6%	7.7%	.0%	.0%	100.0%
전체		빈도	19	17	20	11	60	16	4	4	151
		%	12.6%	11.3%	13.2%	7.3%	39.7%	10.6%	2.6%	2.6%	100.0%

※  $\chi^2 : 37.848^{**}$ ,  $**P < 0.01$

위의 <표 7>과 같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공 만족 집단은 가장 많은 대답인 50명(44.6%)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부의 양이 많다고 응답한 반면, 전공 불만족 집단은 가장 많은 대답인 15명(38.5%)의 응답자가 적성이 맞지 않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응답했다.

<표 8> 공부할 때 시간을 허비하는 가장 큰 이유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TV시청	공부 미루기	친구 만나기	공상	건강 문제	잠자기	계획 부족	휴대폰 사용	인터넷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14	22	5	7	4	7	40	8	5	112
		%	12.5%	19.6%	4.5%	6.3%	3.6%	6.3%	35.7%	7.1%	4.5%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5	6	8	2	2	1	10	4	1	39
		%	12.8%	15.4%	20.5%	5.1%	5.1%	2.6%	25.6%	10.3%	2.6%	100.0%
전체		빈도	19	28	13	9	6	8	50	12	6	151
		%	12.6%	18.5%	8.6%	6.0%	4.0%	5.3%	33.1%	7.9%	4.0%	100.0%

※  $\chi^2 : 11.421, P > 0.05$

위의 <표 8>과 같이 공부할 때 시간을 허비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공부할 때 시간을 허비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계획 부족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0명(33.1%)으로 가장 많았다.

<표 9> 과제에 뒤처진다고 느껴질 때 보충하기 위해 수행하는 학습 형태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교수찾아 질문	친구 노트복사	개인적으로 보충	시험때 보충	기타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2	21	62	25	2	112
		%	1.8%	18.8%	55.4%	22.3%	1.8%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1	11	14	13	0	39
		%	2.6%	28.2%	35.9%	33.3%	.0%	100.0%
전체		빈도	3	32	76	38	2	151
		%	2.0%	21.2%	50.3%	25.2%	1.3%	100.0%

※  $\chi^2 : 5.575, P > 0.05$

위의 <표 9>와 같이 과제에 뒤처진다고 느껴질 때 보충하기 위해 수행하는 학습 형태는 이라는 질문에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과제에 뒤처진다고 느껴질 때 보충하기 위해 수행하는 학습 형태는 개인적으로 보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76명(50.3%)로 가장 많았다.

<표 10> 전공 공부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전공 기초 부족	영어 부담	실생활 연계 부족	상식 부족	학습 동기 부족	인간 관계	공부 방법 모름	시간 부족	기타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32	18	12	13	13	1	12	6	5	112
		%	28.6%	16.1%	10.7%	11.6%	11.6%	.9%	10.7%	5.4%	4.5%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15	5	2	1	9	0	6	1	0	39
		%	38.5%	12.8%	5.1%	2.6%	23.1%	.0%	15.4%	2.6%	.0%	100.0%
전체		빈도	47	23	14	14	22	1	18	7	5	151
		%	31.1%	15.2%	9.3%	9.3%	14.6%	.7%	11.9%	4.6%	3.3%	100.0%

※  $\chi^2 : 10.352, P > 0.05$

위의 <표 10>과 같이 전공 공부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전공 공부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전공기초가 부족하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7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표 11> 전공 공부에서 가장 많이 실행하고 있는 학습 형태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혼자공부	그룹스터디	시험때 그룹스터디	시험때 베틀치기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40	3	6	63	112
		%	35.7%	2.7%	5.4%	56.3%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12	1	2	24	39
		%	30.8%	2.6%	5.1%	61.5%	100.0%
전체		빈도	52	4	8	87	151
		%	34.4%	2.6%	5.3%	57.6%	100.0%

※  $\chi^2 : 0.350, P > 0.05$

위의 <표 11>과 같이 전공 공부에서 가장 많이 실행하고 있는 학습 형태로는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전공 공부에서 가장 많이 실행하고 있는 학습 형태로는 시험 때 베틀치기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87명(57.6%)으로 가장 많았다.

<표 12> 전공 강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좋은 수업의 의미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상호작용 활발	학생수준 고려	수업내용 부합 교수기법	강력하게 이끄는 수업	공정한 평가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23	47	14	19	9	112
		%	20.5%	42.0%	12.5%	17.0%	8.0%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4	20	4	4	7	39
		%	10.3%	51.3%	10.3%	10.3%	17.9%	100.0%
전체		빈도	27	67	18	23	16	151
		%	17.9%	44.4%	11.9%	15.2%	10.6%	100.0%

※  $\chi^2 : 5.935, P > 0.05$

위의 <표 12>와 같이 전공 강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좋은 수업의 의미는 이라는 질문에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전공 강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좋은 수업의 의미는 학생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7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표 13> 전공을 제외하고 주로 공부하는 부분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취업준비	대학원 및 유학준비	자격증 준비	컴퓨터	외국어	교양과목	기타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12	0	42	5	49	3	1	112
		%	10.7%	.0%	37.5%	4.5%	43.8%	2.7%	.9%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8	2	14	4	9	2	0	39
		%	20.5%	5.1%	35.9%	10.3%	23.1%	5.1%	.0%	100.0%
전체		빈도	20	2	56	9	58	5	1	151
		%	13.2%	1.3%	37.1%	6.0%	38.4%	3.3%	.7%	100.0%

※  $\chi^2 : 13.580^*, *P < 0.05$

위의 <표 13>과 같이 전공을 제외하고 주로 공부하는 부분이라는 질문에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공 만족 집단은 가장 많은 대답인 49명(43.8%)의 응답자가 전공을 제외하고 주로 공부하는 부분이 외국어라고 응답한 반면, 전공 불만족 집단은 가장 많은 대답인 14명(35.9%)의 응답자가 전공을 제외하고 주로 공부하는 부분이 자격증 준비라고 응답하였다.

<표 14> 학교수업을 제외하고 하루에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1시간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시간이상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47	44	15	6	0	112
		%	42.0%	39.3%	13.4%	5.4%	.0%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22	10	6	0	1	39
		%	56.4%	25.6%	15.4%	.0%	2.6%	100.0%
전체		빈도	69	54	21	6	1	151
		%	45.7%	35.8%	13.9%	4.0%	.7%	100.0%

※  $\chi^2 : 7.871, P > 0.05$

위의 <표 14>와 같이 학교수업을 제외하고 하루에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은 이라는 물음에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학교수업을 제외하고 하루에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은 1시간 미만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9명(45.7%)으로 가장 많았다.

<표 15> 한 과목당 연습과 복습에 소요되는 주당(일주일 동안) 시간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1시간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시간이상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50	32	20	5	5	112
		%	44.6%	28.6%	17.9%	4.5%	4.5%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19	15	2	3	0	39
		%	48.7%	38.5%	5.1%	7.7%	.0%	100.0%
전체		빈도	69	47	22	8	5	151
		%	45.7%	31.1%	14.6%	5.3%	3.3%	100.0%

※  $\chi^2 : 6.541, P > 0.05$

위의 <표 15>와 같이 한 과목당 연습과 복습에 소요되는 주당(일주일 동안)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라는 질문에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한 과목당 연습과 복습에 소요되는 주당(일주일 동안) 시간은 1시간 미만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9명(45.7%)으로 가장 많았다.

<표 16> 취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하루 학습 시간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1시간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시간이상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57	42	13	0	0	112
		%	50.9%	37.5%	11.6%	.0%	.0%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17	15	4	2	1	39
		%	43.6%	38.5%	10.3%	5.1%	2.6%	100.0%
전체		빈도	74	57	17	2	1	151
		%	49.0%	37.7%	11.3%	1.3%	.7%	100.0%

※  $\chi^2 : 8.984, P > 0.05$

위의 <표 16>과 같이 취업 및 자기계발을 위해 하루 학습 시간은 얼마나 되나 라는 질문에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취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하루 학습 시간은 1시간 미만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74명(49%)으로 가장 많았다.

<표 17> 공강이나 수업 후 활동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동아리	친구	운동	외국어	리포트	빈동 거림	도서관/ 전산소	기타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1	48	4	4	6	34	6	9	112
		%	.9%	42.9%	3.6%	3.6%	5.4%	30.4%	5.4%	8.0%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1	19	3	1	3	9	1	2	39
		%	2.6%	48.7%	7.7%	2.6%	7.7%	23.1%	2.6%	5.1%	100.0%
전체		빈도	2	67	7	5	9	43	7	11	151
		%	1.3%	44.4%	4.6%	3.3%	6.0%	28.5%	4.6%	7.3%	100.0%

※  $\chi^2 : 3.608, P > 0.05$

위의 <표 17>과 같이 공강이나 수업 후 활동을 묻는 질문에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공강이나 수업 후의 활동은 친구를 만난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7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 2.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습기술훈련 요구도의 차이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습기술훈련 요구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표 18> 공부에 관한 학습법 특강을 희망하는지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5	12	44	44	7	112
		%	4.5%	10.7%	39.3%	39.3%	6.3%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0	7	18	13	1	39
		%	.0%	17.9%	46.2%	33.3%	2.6%	100.0%
전체		빈도	5	19	62	57	8	151
		%	3.3%	12.6%	41.1%	37.7%	5.3%	100.0%

※  $\chi^2 : 4.290, P > 0.05$

위의 <표 18>과 같이 공부에 관한 학습법 특강을 희망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공부에 관한 학습법 특강을 희망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2명(41.1%)으로 가장 많았다.

<표 19> 공부학습법 훈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5	12	44	44	7	112
		%	4.5%	8.9%	46.4%	33.9%	6.3%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0	4	23	11	1	39
		%	.0%	10.3%	59.0%	28.2%	2.6%	100.0%
전체		빈도	5	14	75	49	8	151
		%	3.3%	9.3%	49.7%	32.5%	5.3%	100.0%

※  $\chi^2 : 3.747, P > 0.05$

위의 <표 19>와 같이 공부학습법 훈련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공부학습법 훈련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75명(49.7%)으로 가장 많았다.

<표 20> 자기 관리에 대한 훈련 중 가장 필요한 부분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학습시간 관리	학습을위한 심신관리	학습자료와 공간조직관리	기타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77	22	11	2	112
		%	68.8%	19.6%	9.8%	1.8%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20	15	4	0	39
		%	51.3%	38.5%	10.3%	.0%	100.0%
전체		빈도	97	37	15	2	151
		%	64.2%	24.5%	9.9%	1.3%	100.0%

※  $\chi^2 : 6.257, P > 0.05$

위의 <표 20>과 같이 자기 관리에 대한 훈련 중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자기 관리에 대한 훈련 중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학습시간관리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97명(64.2%)으로 가장 많았다.

<표 21> 수업 청강 훈련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수업긍정적 태도훈련	예습훈련	강의집중 훈련	질문훈련	노트정리법 훈련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6	26	66	7	7	112
		%	5.4%	23.2%	58.9%	6.3%	6.3%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8	5	24	2	0	39
		%	20.5%	12.8%	61.5%	5.1%	.0%	100.0%
전체		빈도	14	31	90	9	7	151
		%	9.3%	20.5%	59.6%	6.0%	4.6%	100.0%

※  $\chi^2 : 11.220^*, *P < 0.05$

위의 <표 21>과 같이 수업 청강 훈련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공 만족 집단은 가장 많은 대답인 66명(58.9%)의 응답자가 수업 청강 훈련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강의집중훈련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예습훈련(23.2%)이라고 응답한 반면, 전공 불만족 집단 또한 가장 많은 대답인 24명(61.5%)의 응답자가 수업 청강 훈련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강의집중훈련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수업긍정적 태도훈련(20.5%)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2> 리포트 작성 훈련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도서관 활용교육	과제해결 탐색교육	보고서 작성교육	참고문헌 사용교육	개인작성 교육	글쓰기 후 수정교육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3	41	26	15	19	8	112
		%	2.7%	36.6%	23.2%	13.4%	17.0%	7.1%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1	16	11	3	5	3	39
		%	2.6%	41.0%	28.2%	7.7%	12.8%	7.7%	100.0%
전체		빈도	4	57	37	18	24	11	151
		%	2.6%	37.7%	24.5%	11.9%	15.9%	7.3%	100.0%

※  $\chi^2 : 1.558, P > 0.05$

위의 <표 22>와 같이 리포트 작성 훈련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리포트 작성 훈련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제해결 탐색교육 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7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표 23> 시험계획 세우기 훈련 중 가장 필요한 부분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시험계획 세우기교육	부족과목 시간안배교육	시험요령교육	기타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30	27	52	3	112
		%	26.8%	24.1%	46.4%	2.7%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12	8	18	1	39
		%	30.8%	20.5%	46.2%	2.6%	100.0%
전체		빈도	42	35	70	4	151
		%	27.8%	23.2%	46.4%	2.6%	100.0%

※  $\chi^2 : 0.328, P > 0.05$

위의 <표 23>과 같이 시험계획 세우기 훈련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시험계획 세우기 훈련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험요령교육 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70명(46.4%)으로 가장 많았다.

<표 24> 기억력 증진 훈련 중 가장 필요한 부분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정보습득 저장교육	정보회상 활용교육	효율적 정보처리교육	기타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45	30	36	1	112
		%	40.2%	26.8%	32.1%	.9%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16	9	14	0	39
		%	41.0%	23.1%	35.9%	.0%	100.0%
전체		빈도	61	39	50	1	151
		%	40.4%	25.8%	33.1%	.7%	100.0%

※  $\chi^2 : 0.631, P > 0.05$

위의 <표 24>와 같이 기억력 증진 훈련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기억력 증진 훈련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보습득저장교육 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1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표 25> 공부하기 전략 훈련 중 가장 필요한 부분

구 분			교 차 항 목					전체
			읽기전략 활용교육	핵심개념 파악교육	이해점검 교육	개괄하기 교육	읽으면서 노트교육	
전공만족 유무	전공 만족	빈도	4	60	38	0	10	112
		%	3.6%	53.6%	33.9%	.0%	8.9%	100.0%
	전공 불만족	빈도	0	21	15	1	2	39
		%	.0%	53.8%	38.5%	2.6%	5.1%	100.0%
전체		빈도	4	81	53	1	12	151
		%	2.6%	53.6%	35.1%	.7%	7.9%	100.0%

※  $\chi^2 : 4.960, P > 0.05$

위의 <표 25>와 같이 공부하기 전략 훈련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공부하기 전략 훈련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핵심개념 파악 교육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81명(53.6%)으로 가장 많았다.

#### IV.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보건 행정 및 의료 경영 계열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에 따른 학습실태 및 학습기술 훈련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첫째, 전공만족에 따른 학습실태 차이에서는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곳, 같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물음, 전공을 제외하고 주로 공부하는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공 만족 집단은 40명(35.7%)의 응답자가 취업을 위해 교수에게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전공 불만족 집단은 15명(38.5%)의 응답자가 취업을 위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또한, 전공 만족 집단은 50명(44.6%)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부의 양이 많다고 응답한 반면, 전공 불만족 집단은 15명(38.5%)의 응답자가 적성이 맞지 않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전공 만족 집단은 49명(43.8%)의 응답자가 전공을 제외하고 주로 공부하는 부분이 외국어라고 응답한 반면, 전공 불만족 집단은 14명(35.9%)의 응답자가 전공을 제외하고 주로 공부하는 부분이 자격증 준비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습기술훈련 요구도의 차이에서는 수업 청강 훈련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전공 만족 집단은 66명(58.9%)의 응답자가 수업 청강 훈련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강의집중훈련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예습훈련(23.2%)이라고 응답한 반면, 전공 불만족 집단은 24명(61.5%)의 응답자가 수업 청강 훈련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강의집중훈련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수업공정적 태도훈련(20.5%)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수업 청강 훈련에서 전공 만족 집단과 전공 불만족 집단 모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강의 집중훈련이지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전공 만족 집단은 예습훈련이라고 응답한 반면, 전공 불만족 집단은 수업공정적 태도훈련이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보건 행정 및 의료 경영 계열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학습실태에서는 취업과 관련하여 교수와의 면담을 늘려야 하고,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공부의 양을 주어야 하며, 또한 전공만족을 높이기 위한 학습기술훈련에서는 산만하지 않고 전공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의집중 훈련과 또한, 예습훈련, 수업을 청강함으로써 만족감과 동시에 자아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수업공정적 태도 훈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계현 · 김혜란 · 손진희 · 이상균 · 이지수. 1995. 서울대학생의 학업성취 과정. 학생연구. 30(1): 18-37.
- 김영혜 · 최혜림. 2005.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한 졸업생 의견조사. 인간이해. 26: 51-68.
- 김재은 외. 1997. 한국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서울: 집문당.
- 박병량. 1991. 대학생의 성취행동에 관련된 요인의 종단적 연구. 부산대학교연구보. 26: 1-193.
- 심은숙. 2003. 대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전공학과 만족도 및 학과 인기도에 따른 진로성숙수준의 차이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성규. 2011. 부산, 경남 지역 보건계열 대학(교)의 전공학과별 전공만족도 비교. 한국방사선기술연구

- 회지. 34(2): 131-140.
- 이동재. 2004.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성정체감·성고정관념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규. 1994. 대학신입생의 입학성적과 학업수행에 대한 일 연구. 아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8: 39-55.
- 이은화·강승희. 2009.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습실태 및 학습기술 훈련 요구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6(4): 117-143.
- 이수원. 1986. 대학에서의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생활연구. 4: 5-64.
- 임승민. 2012.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효능감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용수. 1993. 진로사회화의 개념구성과 교육사회학적 논의. 한국교육학연구. 30(3): 257-273.
- 장대운. 1986. 전공적성 불일치 대학생의 전공학과 적응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4: 1109-1154.
- 정유진. 2011. 식품영양학전공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직업선택요인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창균·옥준필. 2006.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신입사원 교육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하혜숙. 2000. 대학생들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Fralick, K. G. 1990. *Study Skills: A Junior High/Middle School Integrated Curriculum Study*. Ph.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Gati, I. 1993. Career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16-424.
- Logue, C. T.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Vocational Interest Theme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nnessee.

---

**金裕鎬**: 2010년 충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한국의 지역응급의료 조직간 대응체계 분석, 2010), 현재 국가위기관리학회 홍보이사,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으며, 청주성모병원에서 근무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병원행정, 보건의료, 재난관리 등이다. 주요연구로는 “병원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방안(2009)”, “지역응급의료 재난관리공동체 형성을 위한 파트너십 연구(2011)” 등이 있다(hoho1027@hanmail.net).

투 고 일: 2012년 07월 12일  
수 정 일: 2012년 07월 26일  
게재확정일: 2012년 07월 31일

## The Difference in Learning Status and Learning Skill Training According to Satisfaction of Health Administration and Healthcare Management Students on Their Major

You Ho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learning status and learning skill training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of health administration and healthcare management students on their majo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first, in the status of learning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for the majo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lace where they got most help for the employment, the questions regarding the most difficult part when they study together, and the parts that they study excluding major. In other words, the group of satisfaction answered that they got help from professors for the employment as 40 people (35.7%) answered so, while the group of dissatisfaction answered that they got help from Internet to get a job as 15 (38.5%) answered so. In satisfaction group, 50 subjects (44.6%) answered the most difficult part in the study was the amount that they should study, while in dissatisfaction group 15 (38.5%) answered that they felt difficulties because study did not match with their aptitude. Additionally, in satisfaction group 49 (43.8%) answered that they studied foreign language excluding their major, while in dissatisfaction group 14 (35.9%) answered that they prepared for various certificates excluding their major. Second, in the difference in learning skill training demand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for the major, the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rt that they think necessary for them out of class training. In details, in satisfaction group, 66 (58.9%) answered that they would need lecture concentration training most, and then preview training (23.2%), while in dissatisfaction group, 24 (61.5%) answered that they would need lecture concentration training and next was lecture positive attitude training (20.5%). As such, although both groups thought lecture concentration training would be the most needed skill, there was difference in the second most needed skill. Satisfaction group answered preview training but dissatisfaction group answered lecture positive attitude training.

**Key words:** health administration, satisfaction for the major, learning status, learning skill training